

직업능력개발

I. 직업능력개발 정책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내 자격검정 운영제도』 개편(2017.07.11.)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HRD) 역량 증진과 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
-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은 사업 내 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검정 개발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 주도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과 기술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 2015년 7월 현재까지 총 74개 기업이 참여해 157개 종목을 운영하였으며, 그 중 중소기업은 22개 기업이 참여해 40개 종목을 운영
- 종전에는 지원금 제공 우선순위 결정 시, 자격검정 인정 종목 수가 많거나 종목별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받았지만,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신규 진입 기업인 경우 1순위 지원 자격을 부여해 이들 기업에게 지원금을 우선 배정
- 또, 검정 운영비 사전 심사와 지원 예상금액 통보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 계획서 접수 후 바로 검정 운영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사업 내 자격 취득자가 취득 자격을 통해 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연수 등의 기회도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자격 원스톱 서비스 'CQ-Net' 제공(2017.07.06.)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10일부터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자격정보시스템(이하 CQ-Net, 주소 : <http://C.Q-Net.or.kr>)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시작

- 그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수험생은 직접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으며,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교육·훈련기관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공단에 원서를 제출
- 앞으로는 수험자와 교육·훈련기관 모두 CQ-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과 시험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기관 안내 ▲맞춤형 과정 검색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절차 ▲과정평가형 자격·일학습병행제 외부평가 정보 ▲합격자 확인과 자격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17년 하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발표

(2017.06.28.)

-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청년층 등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2,804개를 선정
- 2017년 하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 789개, 내일배움카드제 2,015개 과정, 그 외 재직자 훈련과정에 6,853개를 선정(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5,327개, 사업주 위탁훈련 1,526개)
- 신산업 분야 훈련과정 중점 선정
 - 신직업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태양광 등 9개 신산업 직종과 관련한 훈련과정을 중점 선정 (총 240개)
 - 이는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직종과 관련한 훈련과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종의 훈련과정 확대
 - 청년층 훈련 수요 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마케팅, 문화예술경영, 문화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직종의 훈련과정 확대, 청년층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훈련 참여율을 제고
 - 아울러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을 통해 ‘청년선호 우수과정’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여 청년층이 적합한 훈련과정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조선업 밀집 지역 확대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울산, 목포, 통영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의 훈련과정을 추가 선정(구직자 훈련과정 105개)하여 재취업 필요성이 높은 구직자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수도권에 비해 훈련과정이 부족한 소외지역에 346개 과정을 추가로 선정하여 훈련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우수훈련기관의 고성능 훈련과정 위주로 훈련 공급을 확대하고 우수훈련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훈련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

II. 직업능력개발 통계

◆ 가계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출 현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2016) 결과

□ 2016년 연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성인직업학원비 지출액은 2,966원, 외국어학원비 지출액은 2,092원, 학생의 직업준비학원비 지출액은 1,752원임.

- 교육비 지출이 전년 대비 1,207원 감소한 가운데 성인직업학원은 1.1%, 외국어학원은 4.0% 감소하였고, 직업준비학원의 지출만 5.2% 증가함.

-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101,268원으로 나타나 2012년 이후 가장 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출에서 근로자 가구는 성인 직업학원에 1,049원 더 지출하는 반면, 비근로자 가구는 외국어학원에 139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월평균 지출액

(단위: 원)

연도	가구 구분	소득	가계 지출	소비 지출	교육비	직업준비학원	성인직업학원	외국어학원
2012	전체	4,076,876	3,216,894	2,457,441	288,543	900	4,433	2,181
	근로자	4,447,094	3,458,447	2,598,969	310,823	938	4,957	2,111
	비근로자	3,456,472	2,812,105	2,220,272	251,209	838	3,554	2,300
2013	전체	4,161,833	3,261,590	2,480,725	283,453	1,374	4,023	2,214
	근로자	4,568,793	3,514,244	2,630,247	310,104	1,545	4,391	2,292
	비근로자	3,460,574	2,826,225	2,223,075	237,528	1,080	3,389	2,081
2014	전체	4,302,352	3,355,512	2,551,057	284,600	1,773	2,591	2,697
	근로자	4,704,293	3,631,274	2,710,615	307,996	2,149	2,909	3,300
	비근로자	3,599,647	2,873,403	2,272,106	243,698	1,117	2,035	1,644
2015	전체	4,373,116	3,373,302	2,563,092	283,331	1,664	2,999	2,181
	근로자	4,785,259	3,640,881	2,711,431	312,584	1,744	3,335	2,450
	비근로자	3,649,845	2,903,727	2,302,771	231,994	1,525	2,409	1,709
2016	전체	4,399,190	3,361,396	2,549,731	282,124	1,752	2,966	2,092
	근로자	4,867,817	3,665,118	2,721,263	319,963	1,752	3,358	2,040
	비근로자	3,613,651	2,852,279	2,262,200	218,695	1,753	2,309	2,17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2012~2016).

- 2016년 연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 대비 월평균 직업준비학원, 성인직업학원, 외국어학원비 지출액 비중은 각각 0.07%, 0.12%, 0.08%임.

표 2.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 대비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가구 구분	교육비	직업준비학원(A)	성인직업학원(B)	외국어학원(C)	B+C	A+B+C
2012	전체	11,74	0.04	0.18	0.09	0.27	0.31
	근로자	11,96	0.04	0.19	0.08	0.27	0.31
	비근로자	11,31	0.04	0.16	0.10	0.30	0.30
2013	전체	11,43	0.06	0.16	0.09	0.25	0.31
	근로자	11,79	0.06	0.17	0.09	0.25	0.31
	비근로자	10,68	0.05	0.15	0.09	0.25	0.29
2014	전체	11,16	0.07	0.10	0.11	0.21	0.28
	근로자	11,36	0.08	0.11	0.12	0.23	0.31
	비근로자	10,73	0.05	0.09	0.07	0.16	0.21
2015	전체	11,05	0.06	0.12	0.09	0.20	0.27
	근로자	11,53	0.06	0.12	0.09	0.21	0.28
	비근로자	10,07	0.07	0.10	0.07	0.18	0.25
2016	전체	11,06	0.07	0.12	0.08	0.20	0.27
	근로자	11,76	0.06	0.12	0.07	0.20	0.26
	비근로자	9,67	0.08	0.10	0.10	0.20	0.2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2012~2016).

- 2016년 성인직업학원비 지출 가구의 비중은 4.7%로 나타나 2015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월 평균 지출액은 59,326원으로 증가했으며, 소비 지출액 대비 비중은 동일하게 2.0%로 나타남.
- 2016년 외국어학원비 지출 가구의 비중은 3.7%, 월평균 지출액은 49,022원으로 소비 지출액 대비 1.5%를 차지했으며, 2015년 대비 지출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지출액과 비중은 증가함.
- 2016년 직업준비학원 지출 가구의 비중은 1.8%, 월평균 지출액은 73,400원으로 소비 지출액 대비 2.3%를 차지했으며, 2015년 대비 지출 가구의 비중, 지출액, 비중 모두 감소하였음.

표 3.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출 가구의 월평균 지출

(단위: %, 원)

년도	가구 구분	I(직업준비학원)	II(성인직업학원)	III(외국어학원)	IV(성인직업학원+외국어학원)
2012	가구 비중	1.8	7.1	4.8	10.6
	소비 지출(C)	3,069,454	3,050,892	3,331,832	3,124,631
	지출액(D)	48,984	62,342	45,366	62,536
	비중(D*100/C)	1.6	2.0	1.4	2.0
2013	가구 비중	1.9	7.0	4.5	10.2
	소비 지출(C)	3,319,167	2,977,421	3,588,899	3,161,321
	지출액(D)	72,815	57,344	49,622	61,132
	비중(D*100/C)	2.2	1.9	1.4	1.9
2014	가구 비중	2.6	5.5	6.0	10.7
	소비 지출(C)	3,358,418	3,122,052	3,427,772	3,271,299
	지출액(D)	67,424	46,750	45,089	49,449
	비중(D*100/C)	2.0	1.5	1.3	1.5
2015	가구 비중	2.1	5.1	5.1	9.6
	소비 지출(C)	3,070,236	2,973,544	3,402,369	3,210,420
	지출액(D)	79,928	58,708	42,415	53,893
	비중(D*100/C)	2.6	2.0	1.2	1.7
2016	가구 비중	1.8	4.7	3.7	7.9
	소비 지출(C)	3,260,474	2,976,590	3,341,845	3,154,384
	지출액(D)	73,400	59,326	49,022	57,069
	비중(D*100/C)	2.3	2.0	1.5	1.8

주: 1) 가구 구분에서 I은 직업준비학원비가 0보다 큰 가구, II는 성인직업학원비가 0보다 큰 가구, III은 외국어학원비가 0보다 큰 가구, IV는 성인직업학원비와 외국어학원비의 합이 0보다 큰 가구임.
 2)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 가운데 해당 지출액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중임.
 3) 소비 지출과 지출액은 해당 지출액이 0보다 큰 가구에 한해서 계산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2012~2016). KRIVET

(작성: 박라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요〉

-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의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 가구의 응답자가 가계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
- 직업준비학원비: 학생(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컴퓨터 교육,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학원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대가
- 성인직업학원비: 일반인(학생 이외의 자)이 직업 유지, 개인 발전 및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개인 부담 또는 국가 부담으로 컴퓨터, 미용, 조리학원 등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대가
- 외국어학원비: 일반인(학생 이외의 자)의 영어, 일어 및 중국어 등의 외국어 회화 강습과 취업, 유학 등을 위한 어학시험 성적 제출 등을 목적으로 한 강습료
- 가구 구분: 가구주의 직업을 기준으로 구분. “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가구를 의미 하며, “비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자영자나 무직자인 경우임.

사람이 희망입니다.